

손흥민 유럽리그 121골... '전설' 차붐과 나란히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츠르베나 즈베즈다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경기에서 팀 세 번째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이날 토트넘은 5-0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3차전을 시즌 4·5호 골 폭발 차범근 유럽무대 최다골 타이 토트넘, 즈베즈다에 5-0 대승 조 2위 경쟁... 28일 리버풀과 대결

‘이제 1골만 남았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개인 통산 유럽 축구 121번째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 역대 최고 기록(121골)과 타이틀 이뤘다. 토트넘은 23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B조 3

차전에서 세르비아의 츠르베나 즈베즈다를 상대로 5-0 대승을 거뒀다. 최근 침체된 토트넘의 분위기를 달리는 시간 선재골이 터졌다. ‘주포’ 해리 케인에 전반 9분 헤더로 상대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손흥민이 전반 16분에 추가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팀동료 에릭 라멜라의 크로스를 정면에서 집착한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44분에는 손흥민이 사실상 승리에 쐬기를 박는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상대의 실수를 틈타 볼을 빼앗은 앙기 음돔벨레가 집주하는 손흥민에게 정확히 패스했고, 손흥민이 이를 놓치지 않고 가볍게 밀어넣었다. 후반 23분 에릭 다이어와 교체된 손흥민은 홈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원맨쇼’에 힘입어 3경기 만

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승리(5-0)를 거두며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챔피언스리그 B조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이은 2위에 올라섰다. 이날 두골을 추가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 5골(리그 2골·챔피언스리그 3골), 유럽 무대 통산 121호 골을 기록했다. 차범근 전 감독의 121골과 동률을 이뤘다. 외신들은 손흥민 활약에 극찬했다. 영국 BBC는 츠르베나 즈베즈다전 최우수선수 ‘맨오브더매치(MOM)’로 손흥민을 선정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도 손흥민에게 팀 내 최고인 평점 9점을 부여했다. 유럽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인 후스코어드닷컴도 손흥민에게 평점 9.8점을 매겼다. 10점을 받은 해리 케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다. 토트넘은 최근 3경기 무승(1무 2패) 부진을 떨쳐내고 오랜만에 ‘골 폭죽’을 터트리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최근 부진에 빠진 해리 케인은 3경기

만에 골을 신고하며 오랜만에 골게터다운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올 여름 이적료는 7000만파운드(약 940억원)를 주고 야심차게 영입한 ‘신입생’ 앙기 음돔벨레도 이날 증원을 장악하며 2도움을 올리는 등 큰힘을 보냈다. 그간 프리미어리그 속도 등에 어려움을 겪던 음돔벨레도 증원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내는 등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이며 기대감을 높였다. 손흥민은 오는 28일 한국인 유럽축구 최다골(122골)에 정조준한다. 화강한 골 잔치로 분위기를 반동시킨 토트넘은 오는 28일 새벽 1시30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안필드원정에서 리버풀과 대결한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토트넘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리버풀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8승 1무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

메시 기록 갱 음바페

챔스리그 후반 교체 헤트트릭 20세 306일... 최연소 15골

파리생제르맹의 ‘겉 없는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가 유럽 축구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는 23일 벨기에 브뤼헤의 안 브레이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3차전 원정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클럽 브뤼헤를 5-0으로 눌렀다. 이날 음바페는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7분 추모 모딩과 교체 투입돼 후반 16분, 후반 34분 후반 38분에 골을 쏟아 넣으며 교체 투입된 지 불과 31분 만에 헤트트릭을 달성했다. 3골을 몰아넣은 음바페는 만 20세 306일에 개인 통산 챔피언스리그 15번째 골을 기록하며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21세 288일)를 넘어 가장 어린 나이에 15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100번째로 헤트트릭을 달성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시간 경기를 치른 토트넘의 손흥민도 크르베나 즈베즈다와의 경기서 멀티골로 기세를 올렸지만 이른 시간 에릭 다이어와 교체돼 100번째 헤트트릭 선수로 이름을 올리는 데에는 실패했다. 마우로 이카르디(파리생제르맹), 파울로 디발라(유벤투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 해리 케인(토트넘), 세르히오 아게로(맨체스터 시티) 등도 이날 각각 멀티골을 기록하며 100번째 헤트트릭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한편 프랑스 리그1 AS 모나코 유스 출신인 음바페는 지난 2015년 12월 2일 SM 칸과의 리그 경기에 후반 43분 교체 투입, 16세 347일에 데뷔전을 치르며 티에리 앙리가 가지고 있던 팀의 최연소 출전 기록(19세 3개월)을 21년 만에 갈아치웠다. 또 파리생제르맹 소속으로 2017-2018시즌 리그 우승과 지난해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우승을 이룬 차세대 프랑스 축구스타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탁공 광주 FC’ 김주공도 있다

안양전 멀티골 활약 8월 대패 설욕... 박진섭 감독 “가능성 큰 선수”

‘무서운 신인’ 김주공(사진)이 광주FC의 미래를 이끈다. 광주는 지난 1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33라운드 경기에서 4-0 승리를 거두며 우승으로 가는 9부 능선을 넘었다. 그리고 승점 7점 차로 광주를 쫓던 부산아이파크가 20일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0-2로 지면서, 마침내 광주의 우승이 확정됐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펠리페가 두현석의 정확한 코너킥을 받아 머리로 선제골을 넣었고, 10분 뒤에도 다시 두현석이 공을 띄우고 펠리페가 헤더로 마무리했다. 앞선 안양 원정에서 1-7 대패를 당했던 광주의 설욕 무대 다음 주인공은 대졸 신인 김주공이었다. 전반 25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펠리페가 빼돌린 공을 잡은 김주공이 30m 가량을 질주한 뒤 골키퍼

와 마주했다. 오른발로 공을 때린 김주공은 잠시 뒤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후반 25분 다시 한번 펠리페가 광주 진영에서 공을 잡아 빠르게 돌파했다. 그리고 안양 페널티박스 에 진입한 뒤 오른쪽에 있던 김주공에게 공을 밀어 주었다. 이번에도 김주공은 과감하게 슈팅을 날렸고 수비수와 골키퍼를 맞은 공은 이내 안양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팀의 4번째 골이자, 김주공의 데뷔 3호골이었다. 김주공은 29라운드 부산 원정에서 데뷔골을 기록했다. 앞선 28라운드 부천과의 홈경기에서 몇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던 김주공은 “많이 준비했는데 힘이 들어갔다. 다음에는 침착하겠다”고 각오를 밝혔고 바로 다음 경기에서 첫 골을 장식했다. 그리고 안양전에서는 2호골과 3호골을 연달아 기록했다. 전주대 출신인 김주공은 올 시즌 광주

유니폼을 입은 신인이다. 전북 현대의 R리그 테스트 선수로 나서 3경기에서 3골을 기록했고, 이를 지켜본 광주 박진섭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김주공은 “단독 드리블 들어갈 때 수비 신경 쓰느라 골키퍼를 못봤다. 두 번째 골은 펠리페가 잘 밀어줘서 터치해놓고 슈팅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맞았는데 운 좋게 들어갔다”고 웃었다. 또 “감독님께서 믿어주셔서 보답하고 싶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땀 기다라도 공격적으로 쳐서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게 하고 싶어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내년 시즌 K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박진섭 감독에게도 김주공은 기대가 큰 미래 자원이다. 박진섭 감독은 “기술적으로 능력 있는 선수고 많이 움직이고 뛰는 스타일이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처음에는 프로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골을 넣고 적응하면서 자신감이 쌓인 것 같다. 오늘 골이 앞으로 선수에게 자신감이 될 것 같고 팀에도 좋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